



이마트, 국내산 햇감자 '100g에 100원' 판매
이마트가 11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국내산 햇감자를 정상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100g당 1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5만4000명 존엄사 선택... 70% 가족 결정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생명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중단 가능
가족 전원이 동의 땀 중단할 수 있어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 4000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9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3만2460명, 여성 2만1440명이었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 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 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희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775명(34.8%), 1만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 7196명(31.9%)이었다.

/이세경 기자

잇몸 질환 보조치료제 '이클린티엑스캡슐'

태극제약
치은염·치주염 치료에 효과적

태극제약은 '치은염' 및 '치주염' 치료에 효과적인 잇몸 질환 치료제 '이클린티엑스캡슐'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이클린티엑스캡슐'은 치주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치은염'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 치료제로 잇몸의 혈관벽을 강화하고 출혈 예방에 도움을 준다.

주요 성분으로는 잇몸 상처에 회복 효과가 있는 '제피아스코르브산'과 잇몸 혈액순환을 돕는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 혈관을 탄탄하게 해 잇몸 출혈을 완화시키는 '카르바조크롬' 그리고 항균과 소염작용이 있는 '리소짐염산염' 등 네 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제피아스코르브산'과 '토코페

롤아세테이트 2배산'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잇몸 조직의 재생을 돕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을 때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이클린티엑스캡슐'은 한 통에 360캡슐, 120일분 패키지 구성으로, 성인 기준 1회 1캡슐을 일 3회 식후 복용하면 된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잇몸 질환은 관리 소홀히 할 경우, 치아까지 상할 수 있어 평소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이클린티엑스캡슐'은 임플란트나 스케일링 후에도 잇몸을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 복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제약사 '가능성의 땅' 印尼 진출 확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제약사의 시장 진출 적극 지원
인니 제약협회와 교류·수출입 MOU

아세안 최대 의약품 시장인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000만명에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인도네시아 치카랑에서 합작법인 'CKD-OTTO'의 항암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개최, 아세안지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써 준비를 마쳤다. 종근당은 현지에서 처음으로 공장에 할랄 인증을 받아 이슬람 국가 진출로의 교두보도 마련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현지 제약사 컴비파와 공동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PT 컴비파 동아 인도네시아'를 완공했다.

대웅제약은 2014년 현지 바이오업체 인피온과 조인트벤처(JV)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대웅인피온'을 설립했고, 제넥신도 인도네시아 제약사 칼베파마와 합작법인 'PT 칼베 제넥신 바이오로직스'를 세운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국내 제약사들의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인도네시아제약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앞줄 왼쪽)과 다로자툰 사누시 인도네시아제약협회 사무국장(앞줄 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회와 양국 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사업 가능 분야 발굴과 수출입 확대를 위해 지난 1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1969년 8월 설립된 인도네시아 제약협회는 의약품 생산·유통·수입 등 전 분야에서 현지 제약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시장·기업·정책 등 정보를 공유하고, 세미나·포럼 개최 지원 및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의 장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기준 인구 2억 6953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할랄 시장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지난해 기준 약 7조9000억원 수준의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의약품 시장 성장률은 10%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약 1161억원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베트남, 태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은 아세안 주변국으로의 영향력과 다른 이슬람 국가로의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제약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거점국가"라며 "이번 협약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씨제이헬스케어, 대구첨복재단과 항암신약 공동연구

유망 타겟 신약 물질 발굴 연구 진행
개발 능력·임상 역량의 시너지 기대

한국콜마 계열사인 씨제이헬스케어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함께 항암신약 개발에 나선다.

씨제이헬스케어와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는 10일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항암제보다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항암신약 개발을 목표로 유망 타겟 신약 물질 발굴 연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기반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약 물질을 발굴하고, 씨제이헬스케어는 검증 단계를 거쳐 비



씨제이헬스케어 김병문 R&D 총괄 부사장(왼쪽)과 대구첨복재단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이 지난 10일 항암신약 공동 연구 계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상, 임상 연구를 진행한다.

올해 대한민국 30호 신약 케이캡정을 선보인 씨제이헬스케어는 자체개발과 활발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신약 개발을 목표

로 암,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등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첨복재단은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신약과 의료가 연구개발과 의료분야 기업 지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신약개발 지원센터는 건립 4년 만에 갑상선암 치료제, 급성골수백혈병 치료제, 뇌암 치료제 등 6건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이루었다.

씨제이헬스케어 김병문 R&D 총괄 부사장은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우수한 신약 개발 능력과 씨제이헬스케어의 비임상 및 임상 역량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항암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임피리얼 펠리스 서울, 보양식 프로모션 선포

임피리얼 펠리스 서울은 중식당 천산과 일식당 만요에서 '보양식 메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중식당 천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보양식 '천산하경(天山夏景)'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대표 요리는 진속립 총괄 셰프만의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든 장어 요리, 시원하고 진한 국물 맛을 내는 중국식 냉면이다.

장어요리는 바삭하게 튀긴 장어에 신선한 계절 야채를 곁들인 보양식 메뉴로 간풍 소스, 철리 소스, 탕수 소스,

마라 소스 등 다양한 소스 중 기호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장어 요리 외에 사천식 해삼 새우 속박이, 브로콜리 대게살 보양수프, 홍소 송이버섯 한우 안심 볶음, 중국식 냉면, 후식으로 구성됐다.

천산의 시그니처 메뉴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중국식 냉면은 보양식 코스에서뿐만 아니라 단품으로도 즐길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차별화된 맛을 내기 위해 닭육수에 소고기의 깊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1+등급 한우 안심과 건관자 등 몸에 좋



임피리얼 펠리스 서울이 '보양식 메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임피리얼 펠리스 서울

은 재료를 우려내어 만든 시원하고 깊은 맛의 육수가 포인트다. 고품으로 해삼, 전복, 관자, 새우, 오향장육, 해파리 등 최고급 국산재료를 사용해 맛과 건강을 생각했다.

/김민서 기자